일주문

제10차 스터디투어 진행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은 3월 11~16일 캄보디아에서 제10차 스터디 투어를 진행했다. 해외 초등학교 · 유치원등을 방문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를 찾아가는 3000배 정진법회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 법혜 스님은 3월 15일 천안 문화동청사에서 '외국인유학생 자매결연 및 한마당축제'를 열고 유학생 65명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공군 호국군성사 수계법회 봉행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재곤 스님(관음사 주지)은 4월 13일 군산 공군 38전투비행단내 호국 군성사에서 수계 법회를 봉행한다. 063)471-0199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찻집 열어

대한불자가수회 명국환 회장은 3월 27일 오전 11시~오후 7시 불교방송국(BBS) 지하 1층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찻집'을 연다. (02)713-2905

불자장성 군 수뇌부 임명

김태영 합참의장 · 임충빈 육참총장

이명박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불자장성 2명이 요직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3월 17일 대장급 인사에서 불자 장성 김태영 대장(사진 · 좌)과 임충빈 대장(사진 · 우) 을 각각 합동참모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했다.

김태영 합참의장(前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사진 왼쪽)은 59세,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육사29기 출신이다.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작전본부장, 1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대장 진급과 함께 임명예정된 임충빈 육참총장은 58세,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성남고와 육사 29기 출신이다. 17사단장, 1군단장을 거쳐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냈다. 지난 2월 25일 계룡대 호국사에서 열렸던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8주년 기념식에서 총무원장 상을 받았다. **조동섭 기자**

이전 **연중기획**(대표 김중근)이 서울 경운동 SK허브빌딩 B109호로 이전 했다. (02)312-3205

바로 잡습니다. 제671호 일주문의 대구 원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허주 스님' 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대만서 사경전시회 성황

원응 스님, 후원금 현지 고아원 · 장애인시설에 기부

"부처님 법에서는 국경 · 종교 · 인종 차별이 없고 모두 하나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세계 인류 평화를 막고 있어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여 년 사경을 해 온 지리산 서암정사 조실 원응(元應) 스님이 대만에서 '화엄경 금니사경' 전시회를 성황리에 열고 후원금 전액을 현지의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에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스님의 사경전시회는 3월 2일~13일 대만 타이베이(臺北) 국부(國父)기념관에서 열렸다. 대만 자광사(慈光寺, 주지 원교)가 주최하고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와 대만 자광문교기금회가 협찬했다. 전시회는 관람 인원이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우리와는 수행 풍토가 다른 대만에 한국의 사경 수행을 소개함은 물론 한문으로 조성된 경전을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화엄경 금니 사경' 병풍은 60만 자(字)로 이뤄져 있으며 그 길이가 1300여 미터에 달한다. '화엄경 금니 사경' 외에도 여러 경전에서 뽑아 쓴 75점의 작품들이 대만 국민들에게 경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는 것이 현지의 전언이다. 또한 전시된 작품은 일체 판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로부터 1억 2000만원이나 후원받았다고 한다.

대만에서 사경전시회를 개최한 원응 스님(사진 가운데)이 현지의 12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원응 스님의 왼쪽은 자광사 주지 원교 스님이고 오른쪽은 대만불교TV 자비대의 심경 스님.

스님은 이번 전시의 주제를 '세계평화'로 잡았다. 이에 따라 스님은 후원금 전액을 대만의 12개 단체에 내 놓았다.

12개 단체 중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고아원과 지체장애인 수용시설도 있었다. 이외에도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와 대만 운림현(雲林峴)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에도 후원했다.

"우리 불자들은 인류는 하나라는 생각 아래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씩 버린다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평소 '실천하는 불교'를 주창해 온 스님의 수행 정신을 아낌없이 보여 준 계기였으며, 한국과 대만의 불교문화 교류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윤정 논설위원**

"사찰 무료 지하수 개발 신청하세요"

관정개발 봉사하는 보현회 김태룡 부회장

물자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아직도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이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창회의 봉사모임 보현회(회장 정인악)는 물 부족을 호소하는 사찰에 무료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봉사를 펼치고 있다.

지하수 관정개발 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보현회 부회장 김태룡(57) 주식회사 산수음료 대표이사는 "보현회의 무료 지하수 개발봉사에 많은 사찰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현회가 관정개발 봉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오던 봉사를 보현회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산불피해를 입은 양양 낙산사를 비롯해 곡성 태안사, 아산 옥련암, 김천 청암사, 서울 봉덕사, 곡성 관음사 등 사찰 12곳에서 지하수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수량(水量)은 하루 1478톤.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하루 74만명, 생활용수로 활용할 경우 하루 6000명이 이용 가능한 수량이다. 이 밖에도 관정개발을 신청한 사찰 대부분을 직접 공사하거나 자문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지하수 개발 공사는 적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큰 불사다. 그러다 보니 수질이 나쁘거나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치 못한 사찰에서도 선뜻 공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공사 기간만도 수질검사부터 완공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다.

"낙산사 관정공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후 사찰들의 신청이 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최근에는 급감하고 있다"며 "식수와 생활용수로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이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비용은 일체 무료지만 지하수 관정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사찰 근방에 오염원이 없어야 하고, 5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하며, 사찰 부지가 3300㎡(약 1000평) 이상일 때 개발 확률이 높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동안 사찰에서는 우물 개발업자와 무리한 물량계약을 함으로써 무리한 시공과 불량한 자재 사용으로 지하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보현회에서는 생수업체인 산수음료의 앞선 기술과 최고급 자재로 시공해 사찰에 감로수(甘露水)를 공급하도록 관정개발 봉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02)2254-1477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동국대 병원불교회 합동의료봉사

동국대 경주 · 포항 · 경주한방병원불교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합동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불교회는 3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에서 내과 외과를 비롯한 양방병원 5개 진료과와 한방병원 2개 진료과의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북면 270여 가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봉사에는 의료인 40여 명을 비롯한 7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했다. 불교회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금강선원 금강불교대학 1기 졸업식

부천 상동 금강선원 부설 금강불교대학(학장 해광)은 2월 29일 제1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생 24명에 대한 준법사 수계식도 함께 치러졌다. 해광 스님은 "불교대학을 졸업해도 배움은 끝이 없는 것이므로 계속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생들은 3월 6일 서산마애불과 수덕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한편 금강불교대학은 4월 3일부터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32)665-8472 **여수령 기자**

동두천 자재암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동두천 자재암 자원봉사단(단장 법해)은 3월 16일 태안 구례포 지역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45명의 자원봉사단과 가족이 함께 동참한 이날 봉사활동을 통해 오염된 모래와 자갈의 기름을 제거했다. 법해 스님은 "아직도 기름제거에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는 곳이 많아 불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재암 신도들은 입춘불공 때 모금한 성금 300만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응됩니다.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에 활용/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자녀교육에 활용/ 따주기 사회봉사/ 생활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정기 등)/ 이웃에 건강 복 짓기 등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강좌 구분
(1) 스님반
(2박 2일 : 금요일 오후 도착, 토요일 9시 시작 ~ 일요일 13시까지)
(2) 포교사 및 일반인반
(1박 2일 : 토요일 오후 2시 시작 ~ 일요일 13시까지)

나. 강좌 내용
(1) 공통(스님반, 포교사 및 일반인반)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2) 스님반 추가
- 수치의 비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강좌 일정 및 장소(선착순 12명)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1)스님반 : 2008. 4. 12(토) ~ 4. 13(일)
〈4월 11일 금요일 오후 도착〉(34만원)
(2)포교사 및 일반인반 : 2008. 4. 19(토) ~ 4. 20(일) (25만원)
※ 각 반 강의개시 2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옥황토방 숙박/ 자연식단 제공 / 따주기도구 · 비법교재 제공)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